

허훈 서울시의원, 서울 대학생들의 안정적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기반 마련한다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제 단편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

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되지 못해 서울시가 서울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체 지원하고 있는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에는 여전히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이 제외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허 의원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 2027년부터는 학점은행제를 포함한 서울 지역 대학생들에게 안정적인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허 의원은 “보다 많은 학생들이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발

맞춰 나갈 것”이라며, “늦었지만 상위법 개정 사항을 조기에 충실히 반영한 만큼 향후에도 안정적인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잘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에는 각종 지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 관계 부서와 의회가 함께 입법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신속한 입법 보완 작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달까지 25년 하반기(7~12월) 학자금 대출에서 발생한 이자를 지원해주는 1차 접수를 마감했으며 2차 지원은 8월 중 신청 받을 예정이다. 올해 지원 가능 금액은 32억원 가량으로 약 3만명의 학생들에게 지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장성 기자

베트남 지아라이성 대표단, 용산구의회 방문



용산구의회(의장 김성철)는 4월 2일 베트남 지아라이성 대표단이 의회를 방문해 양 도시 간 우호 증진과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즙영 민 득(Duong Minh Du) 지아라이성 산업통상국 국장(대표단 부단장)을 비롯한 외무국, 재정국 등 주요 관계자들로 구성된 대표단은 구의회 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경제·문화·관광 등 다방면에서의 실질적인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대표단은 이어 본회의장 등 의회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용산구의 의정 운

영 현황을 살펴보는 시간을 끝으로 의회 방문 일정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번 대표단의 용산구 방문은 베트남 정부의 지방행정구역 개편으로 기존 자매도시인 퀴논시가 지아라이성으로 통합됨에 따라 기존 협약의 법적 효력을 확보하고 그동안의 교류 성과를 안정적으로 계승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성철 의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과 교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의회 역시 양 지역 간 교류가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장성 기자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 ‘인천글로벌캠퍼스 2030 비전선포식’ 참석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국·연 수)은 2일 인천글로벌캠퍼스(IGC) 대

강당에서 열린 ‘IGC 2030 비전선포식’에 참석해 미래 교육·연구 발전을 위한 비전 제시에 뜻을 함께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해권 의장을 비롯해 유승분·장성숙·이강구·조현영 의원이 참석했으며, 비전 현판식과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비전프레젠테이션, 우수학생 표창, 비전협약식 및 선포식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인천글로벌캠퍼스가 세계를 선도하는 혁신적 학·연·산 플랫폼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장기 비전인 ‘IGC 비전 2030’을 대내외에 선포하고, 글로벌교육·연구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해권 의장은 “인천글로벌캠퍼스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교육·연구 허브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 혁신과 산학 협력 기반 강화에 있어 IGC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재단과 입주대학,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고 비전을 실행해 나갈 때 IGC가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교육 허브로 성장할 것”이라며 “인천시의회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 양성과 지속가능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심하린 기자

김현석 도의원, S11 입주 앞두고 학생 배치 점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지난 1일 경기도의회 과천상담소에서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과천센터 관계자들과 갈현동 S11 포레하이 아파트 입주에 따른 학생 배치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2026년 4월 말 입주를 앞두고, 지난 2024년 울목중학교 학급 증설 논란과 같은 문제가 재발하는 것이 아니냐는 학부모들의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진행됐다. 현재 과천 지식정보타운은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 유입이 지속되며 학령 인구 증가가 높은 지역으로, 울목초·중통합학교와 갈현초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신규 입주에 따른 학생 수용 문제에 대한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갈현초는 2026년 3월부터 증축 공사에 들어가고 있으며, 20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가칭 지식3중학교 신설도 추진되는 등 해당 지역은 교육 인프라 확충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서영희 과천지원센터장은 “S11 블록의 3세부터 19세까지 전체 학령인구는 현재 십수명 수준으로, 당장 학교 수용에 과부하가 발생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현석 의원은 “2024년 울목중학교의 경우 S3 과천리오포레테시아와 S8 린파밀리아가 2월 및 4월 경 입주하면서 전입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특정 학년에 결원이 부족해지고, 인근 단지 학생들이 바로 옆 학교를 두고도 다른 학교로 배정될 수 있는 상황이 있었다”며 “당시 교육청과 협의의 통해 학급 증설과 교원 확보를 신속히 추진하며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S11 포레하이 역시 학기 중인 4월 말 입주가 예정되어 있어 같은 상황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었다”며 “확인 결과 현재는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현재 상황은 안정적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이지만, 과천의 교육환경 전반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며 “학생 수준과 교육 여건을 함께 고려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송민수 기자

경기도의회, 세계기자대회 외신기자단 “AI 시대에도 저널리즘 본질은 신뢰...언론 역할 더욱 중요”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는 2일 오전 의회 청사에서 ‘2026 세계기자대회(World Journalists Conference)’에 참가한 외신기자단을 맞아 환영 행사를 개최하고, 경기도의회의 주요 역할 및 의정활동을 소개했다. 이번 방문은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하는 세계기자대회 일정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일본, 중국, 프랑스, 독일 등 30여 개국 50여 명의 외신기자단이 참석

했다. ‘2026 세계기자대회’는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5박 6일간 서울과 경기도 일원에서 진행된다. 이날 외신기자단은 의정기념관 ‘경기마루’와 분회의장 체험관 등을 둘러보며 경기도의회의 디지털 의정 시스템과 의회 운영 현황을 직접 체험했다. 이어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경기도의회 소개와 함께 질의응

답, 기념촬영 등이 이어졌다. 박호순 의정국장은 환영 인사를 통해 “세계 각국에서 오신 기자 여러분의 경기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라며 “이번 방문이 경기도의회의 역할과 한국 지방자치의 발전 모습을 이해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박 국장은 AI 시대 언론 환경 변화와 관련해 “정보의 생산과 유통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사실의 맥락과 의미를 해석하는 역할은 여전히 인간의 몫”이라며 “저널리즘의 본질은 결국 신뢰에 있으며, 그 책임 또한 언론인에게 있다”고 밝혔다. 특히 “AI는 언론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있는 취재와 본질적인 질문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가 될 것”이라며 “언론이 세계의 등불로서, 공정과 진실의 기준으로서 흔들림 없이 서주시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필리핀과 베트남

에서 온 기자들은 경기도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산업재해 대책과 인권개선에 대해 문의했고, 박호순 국장은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법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독일 펠릭스 린 기자는 AI기술발전 등에 대한 대응 및 저작권 확보에 대해 문의했고, 박 국장은 “정보화위원회 등 도의회 차원에서 의정활동에 AI 등 정보화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논의 중이며,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외에 아제르바이잔 기자가 경기도의 남북협력방안에 대해 질의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외신기자단 방문을 계기로 지방자치의 성과를 세계에 알리고, 글로벌 언론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송민수 기자

경기도의 힘찬도약, 광주에서!

2026~2027 GWANGJU

광주

2026~2027 경기도종합체육대회에서 열립니다!

2026 4월26일(일)~28일(화) 제16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4월16일(목)~18일(토) 제72회 경기도체육대회

2027 제38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제21회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